



광복 81주년 × 마을기업법 시행

빛이 되다, 제주가 빛나다

제주 자립의 3광(光)을 찾아서



광

광복, 자립의 씨앗

1945년 되찾은 빛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자립의 정신은 지역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힘이 되었습니다.
2010년 마을기업은 그 자립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법

법이 되어, 열매를 맺다

2025년 8월 14일, 마을기업은 처음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년간의 시행 준비를 거쳐 2026년 8월 15일,
그 기반은 지역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1945

광복,
일제로부터의 해방

2010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출발

2025

마을기업법 제정
법률 제21017호 공포

2026

마을기업법 시행
현장 적용 시작

광복 81년, 그리고 마을기업법 시행의 해

1945년 8월 15일,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1년이 흐른 2026년 8월,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맞았습니다.

마을기업의 뿌리와 역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담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광복이 나라를 되찾는 역사였다면,
마을기업법은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숲을 지키며 사람을 치유하는
머체왓숲길영농조합법인,
김만덕의 나눔 정신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입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해녀와 주민이 함께 바다의 가치를
이어가는 금능맞차통협동조합을 만납니다.

숲의 빛, 문화의 빛, 바다의 빛 —
제주의 세 마을이 지역의 자원과 사람을
연결하며 만들어가는 자립의 이야기입니다.

빛의 귀환

걷는 길 위에 되살아난 공동체

숲의 빛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머체왓숲길영농조합법인

공동체를 잇기 위해 숲길을 열다

한남리는 오랫동안 감귤 농사가 중심인 중산간 마을이었
습니다. 관광객은 스쳐 지나갈 뿐 마을에 머무는 사람은
드물었고, 공동체도 점차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이장을 맡고 있던 고철희 대표는 어린 시절 뛰놀던 버려
진 목장과 원시숲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제주에 올레길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하자 그는
울창한 숲이 한남리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
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중산간 숲길에 누가 오겠느냐’며
회의적이었습니다. 고 대표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직접
길을 내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숲길을 만들었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머체왓숲길영농조합법인의 시작이었습니다.

숲에서 쉬고, 숲으로 치유하다

머체왓숲길은 자연을 더하기보다 지키는 길을 선택했
습니다. 기존 숲길을 최대한 살리고 최소한의 안내
시설만 설치해 사계절 변화하는 숲의 모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탐방객들은 숲 해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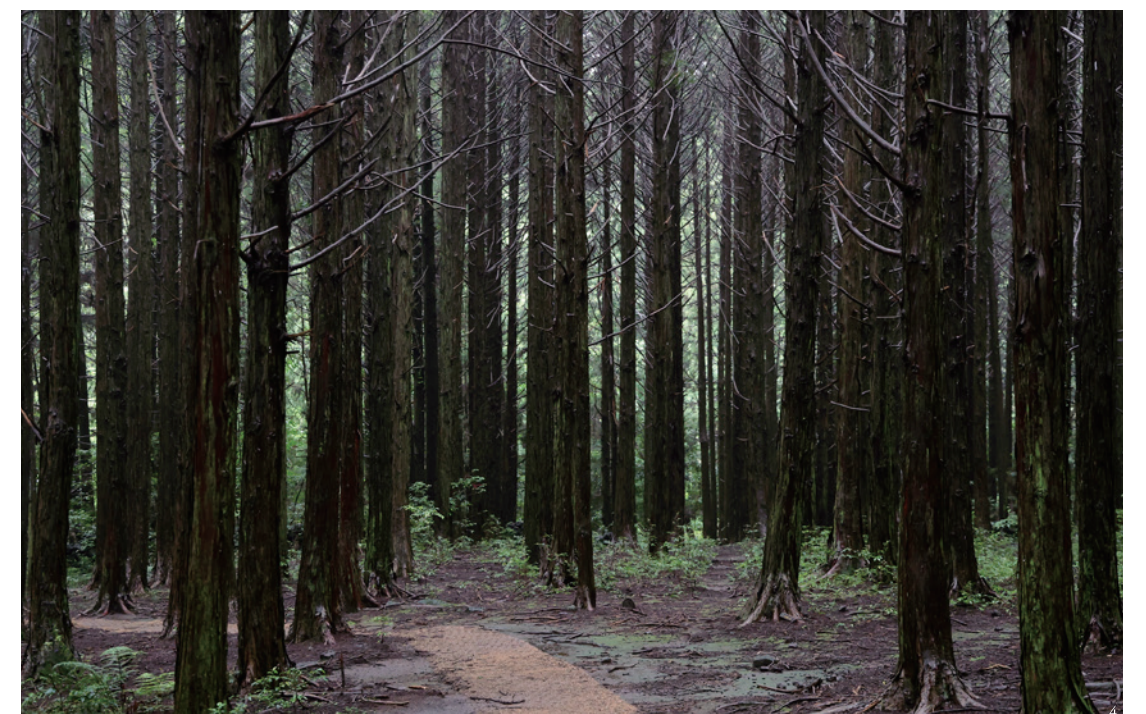
트레킹을 즐기고, 편백숲에서는 해먹과 숲명음, 숲을
내려다보는 공간에서는 편백 족욕과 약차를 통해 여유
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 같은 치유 경험은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을 꾸준히
늘렸고, 지금은 연간 3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찾는
제주의 대표 숲길로 자리 잡았습니다.

숲이 마을을 바꾼다

숲길이 조성된 지 13년. 관광객이 드물던 한남리에는
식당과 카페, 펜션이 들어서며 감귤 농사 외 새로운 소득
기반이 생겼습니다. 주민들은 숲길을 계기로 마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변화는 자연스럽게 공동체
전체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머체왓숲길은 34명의 조합원이 함께 운영하며
지역과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철희
대표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 숲과 마을을 오래 지켜가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개발보다 보전을
선택한 머체왓숲길은 오늘날 제주가 품고 있는 태고의
자연을 지키며 사람과 마을의 내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❶



1. 제주 화산 숲의 원형을 그대로 품고 있는 머체왓숲길 입구.
2. 고철희 대표는 매일 아침 숲길을 걸으며 하루를 연다.
3. 머체왓숲길은 안내를 위한 작은 표식 외에 데크 등 인공 안내물을 최대한 지양한다.
4. 숲길 가장 안쪽으로 들어서면 편백나무 숲이 방문객을 반긴다.



만덕의 마음으로 함께 만드는 따뜻한 마을

문화의 빛

제주시 건입동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술을 빚고, 마을을 돌보다

건입동은 한때 제주의 관문이자 역사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조선 후기 거상 김만덕이 이곳에서 장사를 하며 나눔을 실천했던 흔적은 지금도 마을의 대표적인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확장되며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가 이어졌고,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역사와 문화를 새로운 마을 자산으로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은 산지천과 금산물, 김만덕 객주, 제주43 주정 공장터 등 건입동의 자원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고,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이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 다시 연대로

조합의 대표 사업은 주민이 직접 출자해 만든 마을 양조장 '만덕양조'입니다. 전통주를 함께 배우고 출자금을 모아 세운 양조장은 2024년 '만덕7 제주생막걸리'를, 올해는 증류주 '김만덕주'를 선보이며 건입동을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덕양조는 술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방문객들은 막걸리를 빚고 마을을 걸으며 건입동과 김만덕의 이야기를 함께 만납니다. 이렇게 얻은 수익은 어르신 식사 지원과 주민 일자리, 돌봄사업으로 이어지며 지역 안에서 다시 순환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넘어, 관계를 잇다

조합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 5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고,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도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문을 연 김만덕복합센터는 양조 체험과 전시, 문화 프로그램, 공유오피스, 마을카페를 갖춘 새로운 거점으로 주민과 방문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명범 이사장은 앞으로는 정주인구보다 건입동을 지속적으로 찾고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근에 빠진 제주 도민을 기꺼이 돕고자 했던 김만덕의 나눔 정신처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나누고, 그 가치가 다시 마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건입동이 그려가는 더 나은 미래입니다. ❶

해녀의 바다, 금능의 미래

바다의 빛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금능맛차롱협동조합

차롱에 담은 마을의 맛

제주에서도 해녀가 많은 마을인 금능리는 바다와 발이 함께 삶을 일구는 곳입니다. 해녀들이 채취한 빨소라와 보말, 밭에서 수확한 브로콜리와 콜라비, 감귤 등 풍부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금능맛차롱협동조합은 주민이 함께 지역 자원을 가공·판매하며 새로운 소득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설립됐습니다.

‘맛차롱’은 제주 전통 도시락인 차롱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금능리의 맛과 이야기를 차롱에 담아 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협동조합의 시작은 수출길이 막힌 빨소라였습니다. 주민들은 해수욕장에서 작은 판매 행사를 열어 가능성을 확인했고, 그 도전은 57세대가 함께하는 마을 협동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다의 자원을 끝까지 가치로

금능맛차롱협동조합은 해녀들이 채취한 빨소라를 직접 구매해 가공·판매하며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가공과 판매에 참여해 새로운 소득을 얻고, 브로콜리와 콜라비, 감귤 등 지역 농산물까지 함께 판매하며 금능만의 브랜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숙 빨소라를 만들고 남은 폐각은 감자패와 화분, 생활소품 등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버려질 자원을 새로운 상품으로 되살려 환경을 지키고, 금능리만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기념품으로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능맛차롱협동조합은 해녀의 삶 뿐만 아니라 제주의 자연 환경을 지키고 마을을 지속가능한 내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바다를 지키며, 마을의 내일을 키우다

협동조합이 생긴 뒤 해녀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고, 주민들은 가공과 상품 개발에 참여하며 마을 안에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은 협동조합은 해녀와 농부, 주민을 잇는 연결고리가 됐습니다. 문영남 이사장은 금능리의 다양한 농수산물을 함께 알리는 마을 브랜드를 키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김순일 사무국장 역시 폐각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과 새로운 먹거리를 꾸준히 개발해 금능만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해녀가 지켜온 바다와 주민의 삶을 이어가며, 금능이라는 이름을 오래 기억하는 마을을 만드는 것. 금능맛차롱협동조합은 오늘도 바다와 사람, 마을의 미래를 함께 담아가고 있습니다. ❷



1. 제주 감귤의 화사한 향을 담은 김만덕주, 그리고 인공김이료 없이 국내산 햅쌀과 누룩만으로 빚은 만덕7 제주생막걸리.
2. 행정학 박사이자 제주공공문제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명범 이사장은 포용적이고 유연한 문화가 마을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라고 말한다.
3. 건입동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 조성된 돌불 공간.
4. 마을 사람들이 함께 빚고 함께 운영하는 만덕양조장.



1. 이른 새벽부터 오전까지 해녀들의 작업은 쉬지 않고 이어진다. 물길 종료 안내음이 울려도 작업은 쉬이 멈추지 않는다.
2. 테왁에 가득 실린 빨소라와 성계를 실은 해녀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손질 작업이 이어진다.
3. 비랑도가 눈앞에 그려지는 금능 해변.
4. 금능맛차롱 문형남 이사장은 해녀문화와 지속가능한 제주 마을 생태계를 지키고자 한다.



제주 3광(光)·세 마을의 이야기

빛은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발걸음이 됩니다.

숲을 지키는 사람의 발걸음, 원도심을 다시 잇는 공동체의 손길,
바다를 삶으로 품어온 해녀의 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세 마을기업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자원을 사람의 힘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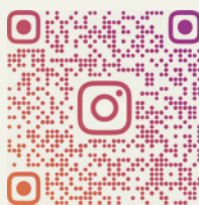


숲의 빛

머체왓숲길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3년 전 버려진 목장에 처음 길을 냈습니다. 자연을 지킨다는 것이
곧 마을을 지키는 일임을 증명한 빛.
연간 30만 명이 이 빛을 따라 걷습니다.



[cafe.meochewat](#)

숲길을 걷고, 편백 족욕으로 쉬어가기

머체왓 숲해설과 해먹 체험까지, 제주의 숲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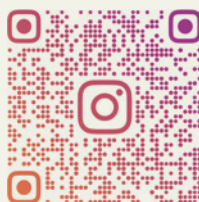


문화의 빛

건입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제주시 건입동

김만덕의 나눔 정신이 술 한 병에 담겨 다시 켜진 빛.
수익은 어르신 식사와 청년 일자리로 돌아가며,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남는 마을을 꿈꿉니다.



[manduk1739_7](#)

전통 누룩으로 완성한 만덕 마을 술 만나기

만덕양조와 복합센터에서
건입동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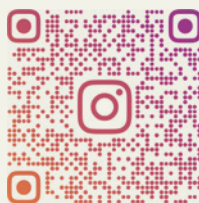


바다의 빛

금능맛차롱협동조합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해녀가 물길로 건져 올린 빨소라 하나가 마을 브랜드가 되고,
버려지던 껍데기마저 기념품이 된 빛.
바다를 끝까지 가치로 잇습니다.



[foodcharong](#)

해녀가 지켜온 바다의 맛 즐기기

빨소라와 마을 먹거리,
업사이클링 상품까지 금능의 가치를 담아가세요.